

#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공공 통합청사 등 농식품시설 구축 착수

전주시가 북서부권 도도동 일대를 지역 먹거리 선순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25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덕진구 도도동 일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공공 통합청사 건립을 연계해 생산·가공·유통·행정 기능을 한곳에 집약하는 미래 농업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기획생산과 선별·저장·물류를 통합 관리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도도동 491-4번지 일원 4624㎡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3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센터가 완공되면 학교·공공 급식에 필요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식재료 공급 체계가 강화되고, 현재 협소한 윌드캡경기장 내 급식센터를 대체해 공급능력도 17톤에서 30톤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도동 488-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도 내년 준공된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전처리실과 가공실, 건조·분쇄실, 베이커리·젤라프 제조실 등 위생시설과 전



전주시 도도동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조감도.

문 장비를 갖춘 가공 전문 플랫폼으로, 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구축에는 총 24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시는 향후 이곳에서 잼·음료·빵·액상차 등 다양한 제품생산과 시제품 개발, 기술교육,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청년농 육성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도동 일원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 통합청사도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어서 미래농업 클러스터의 행정 기반도 함께 강화된다.

도도동 일원 2만7678㎡ 부지에 연면적 7857㎡ 규모로 조성되는 통합청사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는 내년에 부지를 확보한 후 오는 2027년부터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 통합청사가 들어서면 연구·지

도 기능과 공공 인프라 관리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며 농업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향후 이들 시설이 도도동에 집적화되면 지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를 잇는 '전주형 도시농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형 도시농업 생태계는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와 가공 기회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공급받게 되며, 도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향후 시설별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 전략을 마련해 도도동을 전주농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도동 미래 농업클러스터는 개별 사업을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 먹거리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산부터 가공·유통·행정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기반을 통해 전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다양한 농업인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올해 7개 과정 운영·총 3000여명 참여

전주시가 올 한 해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농업인 교육을 추진한 결과, 전문농업인 육성체계가 안정화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재배기술, 온라인 마케팅 및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농업인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농업인 교육 운영에는 총 1억 18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전반적으로 교육 수요율과 만족도(94%)는 물론, 기술 향상도 지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장기 과정으로 운영되는 '농업인대학'은 기존 1개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우리 지역 주요 농작물인 오이·호박 과정과 함께 고추 과정을 개설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별 15회, 70시간을 각각 운영했으며, 총 56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수료했다.

시설 환경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현장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된 이 교육을 통해 영농기술 향상도는 평균

28.9%p(63.3%→92.2%) 증가했으며, 이는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 운영된 '미래농업 청년리더 양성과정'은 스마트농업과 유통·소비 시장 분석, 농기계 실습 및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7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98%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역시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농 품목(멜론) 현장 컨설팅'은 품질향상과 소득이 20~30%p 증가하며 청년농 영농 정착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해 농업설계 교육'에는 771명이 참여해 변화된 농업정책과 기상 대응 전략, 최신 기술을 사전 습득하며 영농 준비를 체계화했으며, 7개 품목 31회로 운영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은 641명이 참여해 품질향상과 기술 애로 해소에 도움을 받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채소 등 신수요 작목 교육을 통해 고온기 적응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디어퍼머 양성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 SNS·블로그 제작과 ChatGPT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농업 비즈니스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대표협의체 회의 열려

전주시는 2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시민 삶과 밀접한 복지 정책의 밑그림이 될 '20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주거 등 분야별 대표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전

주시 복지 사업의 방향과 세부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주시는 이번 대표협의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인후1동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동장 임미영)은 25일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위원장 안진구)와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지호)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김장김치 150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겨울철 식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으며, 참여 단체 회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김



치를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